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고혜원^{1*}, 이철순²

¹한국직업능력개발원, ²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Analysis of Perceptions on Accredit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System

Hye-Won Ko^{1*}, Chul-Soon Lee²

¹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²Division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와 이 제도에 대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의 인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일찍부터 활발히 운용해 온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 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인증평가 절차의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요구되지는 않으나 직업훈련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모두 인증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한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강화, 근로자 대상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간소한 인증평가 제도의 도입, 인증기간 중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의 강화, 직업훈련 성과 중심의 인증평가 제도 운용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funded vocational training, an accredit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accreditation system and the perceptions surrounding it. To this end, accreditation systems from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as well as related domestic systems, were reviewed. Two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131 appraisers and 370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hanges to the standard and accreditation processes are not needed at this point. In the long term, however, it will be necessary to request that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dopt their quality assurance system. In addition, both appraisers and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responded that the accreditation system is being established to increase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in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Based on the study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ccreditation system were suggested as follows: a vocational training enhancement centered on outstanding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n accreditation system simplification for short-term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a stronger monitoring system during the accreditation period; and an operation of outcome-based accreditation.

Keywords :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Provider, Accredita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 Quality Assurance in Vocational Training, Appraiser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Ko(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mail: plato@krivet.re.kr

Received December 14,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Revised January 18,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997년 IMF 관리체제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평가제도는 점차 변모하였고, 2015년에는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한 직업훈련기관만이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증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정부지원훈련 위탁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인증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증유형을 달리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또한 직업훈련기관의 인증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에서 인증(accreditation)은 교육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일정한 준거나 기준을 충족하여 양질의 교육이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 [1] 되기도 하고, 전문 평가·인증기관이 교육과정에 대한 질 보증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정의 [2] 되기도 한다. 인증은 본래 유럽에서 등장한 교육기관 평가 방안이었으나, 북미 교육계에서 이를 차용하면서 학교에 대한 강력한 허가 혹은 규제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3].

이처럼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은 그 기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정부가 직접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은 별도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의 민간화가 강한 국가에서 발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도 민간 직업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활발하게 인증제를 운용해 온 유럽의 제도에도 영향을 받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평가인증은 2011년 1주기 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 5년간 2주기 평가가 시행되었다. 현재 대학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평가원)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며, 이들 기관은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

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목적은 직업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기관이 적절하게 훈련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4]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인증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지표와 훈련기관 인증등급 유형 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럽과 같이 직업훈련기관의 ISO 인증 등의 추가적인 품질관리체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가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품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래의 2.1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논문이 다루는 주제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이나 인식에 관한 학술적 선행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간 유럽 및 국내의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인증평가자와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및 국내의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해 검토하였고, 인증평가자 131명과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 370개소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보다 앞서서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를 발전시킨 유럽 및 국내의 유사 제도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인증평가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이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2. 직업훈련기관 인증의 이론과 실제

2.1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정남인·황복주(2020)는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가 170개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 [9]. 구체적으로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독립변수로 하

고, 직업훈련기관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가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인·황복주(2020)는 인증제도를 통한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주제와는 초점이 다르다. 정선정·이문수(2019)는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 제도를 포함한 직업훈련 심사평가 전체에 대한 제도의 변천과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10]. 그동안의 직업훈련 심사평가 변천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사평가 체계 및 적용 이론, 세부 사업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 이외에는 인증평가기관의 내부자료 및 정책보고서만 있을 뿐이다. 즉,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없으며, 이 논문에서는 따라서 현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

현재 인증평가의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민간의 집체 및 원격 직업훈련기관이다. 대상 기관은 인증평가 기간 내 발생한 직업훈련 실적 여부를 기준으로 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되며, 다년인증을 받게 되는 기관은 인증기간 중 기관건전성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 등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다년인증 등급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5].

인증평가는 총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기관건전성평가이고, 2단계는 역량평가이다. 먼저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에서는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세금 체납 및 신용수준 등 기관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준법성과 재정건전성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기관건전성평가는 대학 등과 달리 소규모 직업훈련기관도 많으므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기관의 경영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2단계인 역량평가를 받게 된다. 실적기관은 성과평가와 현장평가를 받게 되고, 신규기관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평가만 받게 된다. 역량평가의 경우, 집체훈련/원격훈련, 실적기관/신규기관의 여부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게 구성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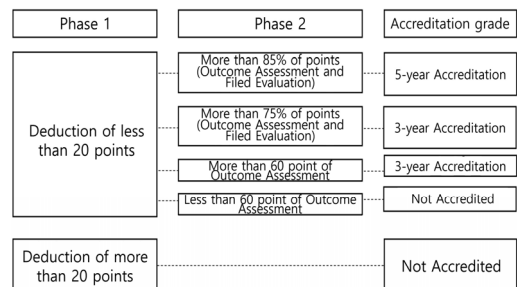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집체훈련기관의 인증평가 항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ccreditation Criteria and Points for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with In-class Training Records

Accreditation Areas		Accreditation Items
Phase 1	Institutional Integrity (Adequate/Inadequate) - Assessment in writing	1. Law-obedience 2. Financial soundness
		Points by Training (40 points) [Indicators for Unemployed Individual Training Providers] 1. Employment rate 2. Employment retention period 3. Trainee satisfaction 4. Drop-out rate 5. Additional points (wage level of employed trainees, etc.) [Indicators for Incumbent Training Providers] 1. Completion rate 2. Trainee satisfaction
Phase 2	Competency Assessment (100 points)	Common Indicators (20 points) 1. Results of trained individual evaluation 2. Coursing opening rate
		2. Field Evaluation (40 points) 1. Institutional management 2. Training course management 3. Equipment and facility 4. Manpower devoted to training 5. Trainee management

Sour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Revised what is written in p.19, 2019. [6].

자세한 판정기준은 아래 Fig. 1과 같다.



Sour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Revised what is written in p.40, 2019. [7].

Fig. 1. The Accreditation Decision Criteria for Vocational Training Providers with Training Records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증평가 현황을 보면, 2015년 4,667개소 중 3,557개소, 2016년 3,845개소 중 2,948개소, 2017년 4,115개소 중 3,197개소, 2018년 4,087개소 중 3,374개가 1년 이상의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통과하였다.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9년 기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총 4,598개이며, 이중 인증을 통과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 인증 42개소, 3년 인증 2,589개소, 1년 인증 868개소로 나타났다. 전년도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은 1년 인증만 가능하며, 3년 인증 이상을 받은 기관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다.

Table 2. The Current State of Vocational Training Provider Accreditation in 2019

Category	5-year Accreditation (Excellent)	3-year Accreditation		1-year Accreditation	Not Accredited	Total	
		Excellent	Accredited				
Total	42 (0.9%)	543 (11.8%)	2,046 (44.5%)	868 (18.9%)	1,099 (23.9%)	4,598 (100%)	
Providers with Training Records in the Previous Year	In-class	41	522	1,950	-	640	3,153
	Distance	1	21	96	-	34	152
Providers without Training Records in the Previous Year	In-class	-	-	820	398	1,218	
	Distance	-	-	48	27	75	

Source: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Internal document [8].

3. 유럽 및 국내의 인증제도

3.1 유럽의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

3.1.1 인증대상 및 자체품질관리

직업훈련기관 인증제도는 민간에서 실시되는 향상훈련(CVET: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 많은 유럽에서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민간에서 실시되는 향상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양성훈련(IVET: Ini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은 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적용받는다. 향상훈련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부가적으로 실시되는 실업자훈련이나 재직자훈련을 의미하며, 따라서 양성훈련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직업훈련이다. 양성훈련은 노동시장 진입 전에 실시되는 비교적 장기적인 직업훈련이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에 의해 실시된다.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이 세계에서 제일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독일에서 통일 이후 향상훈련기관은 구 동독지역의 재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1997년 향상훈련기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향상훈련기관의 자체평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2002년 ‘하르츠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향상훈련기관은 기관 내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으며,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외부의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에서 2002년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개선도 제안했다.

3.1.2 품질관리 틀과 인증기준

역시 직업훈련이 가장 발달한 독일의 품질관리 틀에는 연방 및 주 수준, 사회적 파트너, 직업훈련기관 및 독립적인 전문가 대표가 포함된 자문위원회가 만드는 가이드라인과 권고가 있다. 인증 기준은 고객 지향, 취업 알선, 품질경영 개선계획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 육성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며, 가장 강조되는 것은 훈련생의 취업 등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된 이슈이다.

다음 Table 3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 7개국에서 직업훈련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평가받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직업훈련의 일련의 과정인 투입, 과정, 산출, 성과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나 국제화 기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Table 3. Accreditation Criteria applied in European Countries

category	Denmark	Germany	France IVET	France CVET	Hungary	Italy	Romania	England
Context								
-approved demand	√	√						√
-links with territory	√		√			√		√
-quality management system	√	√		√	√	√	√	√
Input								
-facilities	√	√			√	√	√	√
-equipment	√	√			√	√	√	√
-financial management						√	√	√
Process								
-curriculum		√	√	√	√	√	√	√
-training staff	√	√	√	√	√	√	√	√
Output								
-drop-out	√							
-examination /graduation	√	√		√				√
Outcome								
-employment effects	√	√	√			√		
-cost-effectiveness		√				√		
Internationalisation	√							

source: CEDEFOP, Assuring quality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role of accrediting VET provider, p.160, 2011. [11].

3.1.3 인증의 활용과 절차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인증은 정부지원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더 나아가서 영국에서는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률의 최저 수준(직업훈련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이 53%)을 충족해야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영국의 교육훈련표준청(Ofsted) [12] 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인증평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이전 인증평가 결과 및 광범위한 지표표를 사용한다. 교육훈련 기관의 이전 인증평가 등급, 자체 인증평가 보고서, 성과 데이터, 진학률이나 취업률과 같은 결과 데이터, 경영진 교체 사항, 재정지원 기구 및 학습자와 사업주 등에서 얻은 정보, 온라인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학습자 및 사업주, 학부모 등의 의견, 그리고 노동시장 정보와 같은

지역적 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인증 여부 및 빈도를 정한다.

인증은 4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며, 가장 최근의 인증 결과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은 추가적인 인증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과가 하향되는 경향이 있는 기관이나 안전문제가 제기된 기관은 인증평가를 받게 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3년 이내에 인증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성과가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full inspection)나 부분 평가(short inspection)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받게 될 수 있다.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기관은 12~24개월 이내에 종합 재평가를 받는다. '미흡'에 해당되는 기관은 인증평가 보고서가 발간된 후 15개월 이내에 지도점검을 받거나 재평가를 받는다.

다음 Table 4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 7개국의 인증평가의 활용목적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수수료증 발급 기능과 공적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인증평가 기관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나타나며, 현장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최종인증은 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공표가 된다. 인증평가기간은 2~15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증기간은 1년마다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1년마다 모니터링이 있는 등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취업률의 최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유럽의 인증제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인증이 주로 민간에서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 개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품질관리시스템, 시설·장비 및 재무관리, 커리큘럼 및 인력 등 교육훈련과정, 산출(중도탈락, 수수료), 성과(고용 및 비용) 등이다. 인증은 정부 등 공적자금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되나, 인증을 받은 직업훈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취업률의 최저 조건 등을 갖춰야만 실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Table 4. Accreditation Processes in European Countries

category	Denmark	Germany	France IVET	France CVET	Hungary	Italy	Romania	England
Precondition for delivery of diplomas	√	√				√	√	√
Precondition for public funding	√	√	n.a.	n.a.	√	√	√	
Accreditation body								
-ministry/regional authority			√	√		√		
-governmental body	√				√		√	
-external accreditation agencies		(27)						√
Site visit	√				√		√	√
Final recognition by:								
--ministry/regional authority	√		√	√				
-governmental body					√			
-external accreditation agencies		√						√
Public announcement	√	√	√	√	√	√	√	√
Duration of process (months)	3	3	12	15	2	√	4-12	12-15
Renewal after (years)	5-6	3	5	3	4	1	4	3-5
Interim Monitoring (years)		1	1	1	-*	1	1	1-3
Quality label/ (certificate)		(√)	√	√	(√)	-*		(√)

note: (*) Not specified, random inspections.
 source: CEDEFOP, Assuring quality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role of accrediting VET providers, p.163, 2011. [13].

3.2 국내의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기존의 대학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종합평가(또는 학과평가)에서 정부 인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가 실시되고 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평가인증의 범

위는 개별 학과(전공) 및 학부가 아닌 대학 전체대상이다.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의 대학 운영 및 교육 전반을 다룬다 [14].

평가인증의 주기는 5년이며,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인증 및 인증유예를 통한 보완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평가기준은 총 3단계로 1단계(7개)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의 활동 구성을 위한 핵심기준, 2단계(18개) 핵심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적 활동기준, 대학운영 및 교육의 활동요소, 기준의 하위 구성 요소, 3단계(45개) 세부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및 진단근거, 세부 기준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5].

평가인증의 판정유형은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나뉜다. 인증은 신청 이후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고 4개의 인증단계 중에서 인증과 조건부 인증은 인증의 범주에 구분되며, 불인증과 인증유예는 불인증의 범주로 포함된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많은 방향성을 제공한 바와 같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확연히 다른 점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서 조건부 인증 제도를 두는 데에 있다. 이는 민간의 직업훈련기관이 영세한 곳이 많음에 비추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전문대학이라는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한 인증이고,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는 매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건부 인증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

4.1 조사 대상 및 조사 문항

2015년부터 시작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인증평가를 담당한 인증평가자인 전문가 그룹과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 그룹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11월 중에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Table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19년 기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인증평가자는 500명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인증평가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협조에 따라서 이들 인증평가자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문

여한 인증평가자는 모두 131명이었다. 조사대상 인증평가자 경력은 '3~7년 미만'인 응답자가 54.2%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은 '대학(교직원)'이 61.1%로 나타났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Surveyed Appraisers

Category		N	Ratio (%)
Total		131	100.0
Gender	Male	93	71.0
	Female	38	29.0
Years of Experience in Accreditation	Below 3 years	16	12.2
	3-7 years	71	54.2
	7-10 years	29	22.1
	Over 10 years	15	11.5
Institutions to Which Appraisers Belong	Universities (faculty members)	80	61.1
	Research Institute	9	6.9
	Enterprises	30	22.9
	Freelancers	9	6.9
	Others	3	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인증평가기관은 4,598개이며, 다음 Table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설문에 참여한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은 370개소로 설립년도가 '2015년~2019년'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훈련분야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살펴보면, '보건 의료'가 17.3%, 인증유형으로는 '3년 인증기관'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이 기관의 운영 경력이나 분야, 인증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도록 조사대상을 확보하였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Surveyed Training Providers

Category		N	Ratio (%)
Total		370	100.0
Year of Establishment	Before 2000	91	24.6
	2000-2009	91	24.6
	2010-2014	78	21.1
	2015-2019	110	29.7
Major Training Area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usiness management	5	1.4
	Management, Accounting	59	15.9
	Finance, Insurance	3	.8
	Education, Natural/Social Science	10	2.7
	Laws, Police, Firefighting,	6	1.6

Category		N	Ratio (%)
Type of Accreditation	Warden, Defense		
	Healthcare, Medical	64	17.3
	Social welfare, Religion	15	4.1
	Culture, Arts, Design	18	4.9
	Transportation	3	.8
	Sales	4	1.1
	Security, Janitor	6	1.6
	Hairdresser, Accommodation, Travel, Entertainment, Sports	17	4.6
	Food services	21	5.7
	Construction	28	7.6
	Machinery	27	7.3
	Materials	6	1.6
	Chemical	2	.5
	Textile, Garment	8	2.2
	Electrical, Electronics	27	7.3
	Information technology	20	5.4
	Food processing	2	.5
	Printing, Wood, Furniture, Handicraft	7	1.9
	Environment, Energy, Safety	9	2.4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3	.8
Providers with 1-year accreditation	136	36.8	
Providers with 3-year accreditation	205	55.4	
Providers with 5-year accreditation	8	2.2	
Accreditation suspended	21	5.7	

조사문항은 학술적 선행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평가기관의 내부자료 [16]에서 제시된 인증평가 제도를 둘러싼 이슈들을 포함하여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방형 질문 및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개방형 질문으로는 인증평가 제도에 따라서 피인증평가기관인 훈련기관이나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으로는 인식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증평가로도 직업훈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 수는 많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은 경쟁력이 있다, 인증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 및 고숙련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인증평가 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기간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인증평가 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유형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훈련유형별로 인증평가 수준이나 방법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훈련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인증평가는 불공평하다, 1년 정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기관이 인증평가에 지원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따른 인증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이슈들에 대한 동의수준을 판별하였다.

4.2 인식 비교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모두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이 달라진 점'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관 경영상 체계 구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정적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행정적 부담의 가중'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모두 인증평가를 통해서 직업훈련기관 경영의 틀은 잡혔으나 이와 관련한 준비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 및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10개의 질문을 구성하여 동의여부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평가자인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인증평가 결과를 훈련내용, 훈련유형, 훈련기간에 연동하는 데 대한 동의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인증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 및 고속련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4.2점), '인증평가 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유형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4.14점), '인증평가 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기간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4.07점) 등의 항목에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인증평가를 통해 직업훈련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증평가 결과를 훈련유형이나 훈련내용, 훈련기간과 연동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의 동의수준은 인증평가자인 전문가 조사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았다. 앞서 인증평가자인 전문가들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3가지 질문에 동의수준이 높지 못하며,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따른 인증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3.78점),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 수는 많다' 및 '훈련유형별로 인증평가 수준이나 방법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에 대하여 3.69점으로 비교적 동의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훈련기관의 인증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3년 및 5년 인증기관일수록 즉, 비교적 인증평가 점수가 높은 우수기관일수록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 수는 많다', '인증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 및 고속련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인증평가 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기간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인증평가 등급에 따라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유형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1년 정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기관이 인증평가에 지원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에 대하여 인증평가자인 전문가들과 유사하게 비교적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인증평가가 실제로 직업훈련기관들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조건이면서 준수해야 할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평가자보다는 인증평가에 대한 동의수준이나 활용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지 않지만, 우수기관일수록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았다.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하여 인증평가자인 전문가와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의 동의수준에 대한 평균값과 차이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도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고, 각 집단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며, 각 집단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만족시켜야 하는바, T검정 시 Levene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질문에 대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의 동의수준을 비교한 결과, 3가지 질문(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 수는 많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 훈련기관은 경쟁력이 있다,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따른 인증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을 제외한 7가지 질문의 동의수준에는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onsent for VET Accreditation and Its Utilization

Category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Levene(F)	t	
Current accreditation system can assure the quality of VET	Expert	131	4.05	.683	65.812***	7.081***
	Training Provider	370	3.49	1.005		
A large number of VET providers currently receive government support	Expert	131	3.79	.848	3.169	1.060
	Training Provider	370	3.69	.946		
VET providers currently receiving government	Expert	131	3.50	.807	3.009	.555
	Training Provider	370	3.45	.919		

Category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Levene(F)	t
support are competitive						
It is necessary to allow training providers to provide new technology or high-skill training only when their accreditation ratings are high	Expert	131	4.20	.845	31.547***	8.872***
	Training Provider	370	3.35	1.155		
It is necessary to vary training period depending on the accreditation ratings of training providers	Expert	131	4.07	.879	37.269***	7.793***
	Training Provider	370	3.30	1.191		
It is also necessary to vary training types depending on the accreditation ratings of training providers	Expert	131	4.14	.762	58.935***	9.948***
	Training Provider	370	3.21	1.245		
It is also necessary to vary accreditation level or methods depending of training types	Expert	131	4.05	.807	31.477***	4.048***
	Training Provider	370	3.69	1.096		
Accreditation conducted irrespective of the size of training providers is unfair	Expert	131	3.29	1.160	.984	-2.782**
	Training Provider	370	3.64	1.253		
It is necessary to allow training providers with one-year VET experience to apply for accreditation	Expert	131	3.86	1.080	11.771*	2.218*
	Training Provider	370	3.61	1.256		
It is also necessary to perform accreditation depending on regional or industry characteristics	Expert	131	3.94	.926	20.013***	1.588
	Training Provider	370	3.78	1.111		

Note: *p<0.05, **p<0.01, ***p<0.001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보였다.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인증평가자인 전문가와 비교적 우수한 직업훈련기관과 일반 직업훈련기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와 우수기관은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제로 2015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기관이 적절하게 직업훈련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이후 매년 4,000개소 내외의 직업훈련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데, 향후 5년 및 3년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실시되는 인증평가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와 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 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피인증평가기관인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럽 및 국내의 전문대학 기관평가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목적,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나 절차의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평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 모두 인증평가를 통하여 기관경영상 체계 구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인증평가를 받는 데 대한 행정적 부담의 가중을 모두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럽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ISO 인증 등의 추가적인 품질관리체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소규모 직업훈련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인증평가가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품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인증평가 제도 이외에 평상시에 항상 작동할 수 있는 자체적인 품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까지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만큼 우수기관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증평가자인 전문가와 피인증평가기관 중 우수 직업훈련기관은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신기술이나 고숙련 직업훈련의 경우 혁신적인 신규기관에 제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지만 가능한 인증평가 등급(인증평가 획득점수 또는 우수기관 여부)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고숙련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증평가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는데, 현재의 인증평가 부담 완화 및 인증평가의 실효성 차원에서 장기간 및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외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한 인증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셋째, 인증기간이 5년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증 기간 중에 영국 등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증기간 중이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하고, 향후 직업훈련기관의 수준 변화를 보면서 2년 또는 4년 주기의 인증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넷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듯이 궁극적으로 훈련성과 중심의 인증평가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개별 직업훈련기관의 정확한 훈련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및 사업별 성과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영국과 같이 인증평가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업률 등 성과가 낮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 장치의 모색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 관련 선행연구가 직업훈련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도의 변천을 검토한 데 비하여 2015년 도입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 자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일정정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 취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인증수준별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품질향상이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인증평가 제도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실업자훈련이나 재직자훈련 등 직업훈련의 유형별로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S. Lee, D. H. Kang, M. Y. Chang, H. S. Woo, J. W. Lee, B. L. Jeong,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Faculty Members on the National Accredit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24, No.2, pp.99-109, 2016.
DOI:<https://doi.org/10.14519/jksot.2016.24.2.08>
- [2] Ministry of Education, "Greater Fairness and Accountability for Higher Education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Ministry press release, Dec. 7, 2017. Available: <https://www.korea.kr/news/%20%20%20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813>
- [3] H.S. Kim,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of Theory and Practice, Education and Science Company, p.300, 2014.
- [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Accreditation of VET Providers in 2020: A Reference for In-class Training Providers, p. 284, 2019.
- [5]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Internal document.
- [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Accreditation of VET Providers in 2020: A Reference for In-class Training Providers, p. 284, 2019.
- [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Accreditation of VET Providers in 2020: A Reference for In-class Training Providers, p. 284, 2019.
- [8]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Internal document.
- [9] N. I. Jung, B. J. Hwang, "The Influenc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Mediation Effect of Absorptive Competence and Innovation Behavior",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35, No.1, pp.175-199, 2020.
- [10] S. J. Jeong, M. S. Lee, "A Study on the Changes in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and its Cases and

Effec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8, No.6, pp.137-187, 2019. DOI: 10.37210/JVER.2019.38.6.137

- [11] CEDEFOP, Assuring Quality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role of Accrediting VET provid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228, 2011.
- [12] OFSTED, Further education and skills inspection handbook, 2020. Availabl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73169/Further_education_and_skills_handbook_Mar2020.pdf
- [13] CEDEFOP, Assuring Quality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role of Accrediting VET provid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228, 2011.
- [14] Ministry of Education, “2018 University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Results”, Ministry press release, Dec. 17, 2018.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77448>
- [15] Ministry of Education, “2018 University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Results”, Ministry press release, Dec. 17, 2018.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77448>
- [16]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of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Internal document.

이 철 순(Chul-Soon Lee)

[정회원]



- 1988년 8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관심분야〉
한국정치, 대학평가

고 혜 원(Hye-Won Ko)

[정회원]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1997년 11월 ~ 현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장

〈관심분야〉
직업교육훈련정책, 고용정책, 여성노동